

모리스

1978년 멕시코 멕시코 시티 출생/현, 멕시코 멕시코 시티 거주 및 활동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모리스는 조각의 물리적 특성에 중점을 둔다. 작가는 다양한 매체로부터 채도하는 이미지로 꼭 찬 이 세계 안의 자신의 삶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그렇다고 내러티브를 추출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의 형식적 요소들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문학, 정치, 여행과 같은 공적 활동과 상황들에서 뽑아낸 요소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보다 넓은 층의 관람객들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모리스는 입체적 사물들을 가장 인지하기 쉬운 미술기호라 보고, 하나의 새로운 미술적 사고를 반영하는 설치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다. 모리스의 작업은 주로 정치역사적 스펙터클이 현대문화 속에 사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며, 그의 작품들은 주류문화, 대중문화 그리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이 어떤 경로로부터 생성되며 공적으로 표출되는가에 있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어떠한 동적인 요소도 찾아볼 수 없다. 겉으로는 아무리 동적으로 보일지언정 말이다.

첫 대면에서 모리스의 작품은 역사적으로 포장되거나 꾸며진 사건들을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그의 수사법은 은밀한 기교를 부림으로써 예상치 못했던 효과들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며 총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블랙유머를 살짝 가미한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가 "건축의 목적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고 했듯이 모리스는 건축의 극적 목표를 고집스럽게 현실화한다. 즉, 그의 작품은 미술 작품의 비범한 힘이 단지 우리로 하여금 원가를 깊게 느끼게끔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거주 가능토록 하는 의미 있는 여러 환경들 속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도 있다. 주거 영역의 주변적 공간들의 의미를 탐색하는 흥미진진한 에세이를 살펴보면 '주거'라는 단어의 출처는 고대 영어 단어 'dwellan'인데, 이 단어는 '길을 잃다' 또는 '지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주거지는 사이의(in-between) 공간이며, 이 '사이의 공간'에서 즉, 여러 세계들 사이에서는 어정쩡하게 주춤거린다. 거주라는 활동은 따라서 정관적 꾸물거림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장소의 본성에 반응하는, 그리고 연상작용에 의해 생성된 판타지, 백일몽, 욕망, 또는 기억들을 통해서 당신을 당신의 상상으로 데려가는 그 어떤 무엇에 대해 열려 있는, 공간 또는 위치에 머무는 하나의 방식이다. 거주한다는 것은 기꺼이 부유하기, 잠시 '동작 그만' 할 수 있기, 어느 정도 단념하며 자신에게 상상을 허용하기이다. 왜냐하면 거주라는 활동은 우리가 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들(방, 스튜디오, 화랑, 집, 가정)에서 상상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소들에 대해 우리는 종종 어떤 뒤섞인 감정

Moris

Born in Mexico City, Mexico, 1978 / Lives and works in Mexico City, Mexico

In his work, Mexico City-based artist Moris likes the physical facts of sculpture. With the glut of imagery in the world from various media he chooses images from his own life—not narrative per se—as a way to organize the formal elements of his work. Elements from public activities and situations such as literature, politics and travel appear in his work as a way to make them accessible to a broader audience. Moris uses three-dimensional objects as the most recognizable sign of art while introducing installation elements that reflect a new artistic thought. Moris' work is primarily concerned with how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spectacle has affected the individual in contemporary culture. His works move between the territories of dominant culture, popular culture and diverse subcultures. He is interested in how people define themselves, and in how social identity is constructed and manifested publicly. His works never carry elements of movement—even though they may seem to do so.

At first glance, Moris' art objects appear to be historically wrapped or packaged events. But his rhetoric has an underhanded virtuosity, capable of producing unexpected effects with a bit of black humor tossed in discreetly to prevent the final ensemble. As the architect Le Corbusier(1887-1965) once remarked, the purpose of architecture is to move us, then in his work Moris consistently realizes architecture's highest aim: he creates works whose extraordinary power lies not only in how deeply they make us feel, but also in how they let us see the complexity of our feelings, in meaningful environments which help us to dwell. In a fascinating essay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peripheral spaces in dwellings, the word "dwelling" has its origins in the Old English word "dwellan," which means to go astray or to delay. A dwelling is an in-between space where one may hesitate between worlds. The activity of dwelling is therefore a contemplative lingering—a way of remaining in a space or location that is responsive to the nature of that particular place, and open to whatever it happens to take you in your imagination, through association, through fantasies, daydreams, desires, or memories. To dwell, then is to be willing to drift, to be able to pause, to let yourself imagine with some abandon. For the activity of dwelling involves imaginatively inhabiting the spaces we invest with personal meaning—rooms, studios, galleries, houses, homes. That our feelings about such places are often mixed, that we are often drawn to what both attracts and repels, these are things Moris understands intuitively, and are his greatest insights as an artist. If in the space surrounding his objects we experience our own ambivalence about certain issues more intensely, it is because of the way, in theme and structure, his work so elegantly hold contradictory elements in tension.

Peter DOROSHENKO

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그 무엇에 우리가 종종 끌려들어 간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모리스가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며 미술가로서의 그가 간파한 탁월한 식견들이다. 만약 그의 사물들을 둘러싸는 공간에서 어떤 이슈들에 대한 우리의 애매한 태도를 보다 격렬하게 경험한다면, 모리스의 작업이 모순적 요소들 간의 긴장을 그렇게도 우아한 형태로 확보한 방식, 주제 그리고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피터 도로센코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찢어진 하늘
2009
캔버스 위에 나무, 금속, 유채
60x180x2.5cm

Cielo Roto (Ripped Sky)
2009
Oil on canvas, wood, metal
60x180x2.5cm

